



한-인니, 미래 신산업 협력 이행 본격화

- 현지 진출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「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」 체결
- 「e-모빌리티 협력센터」 상반기 가동,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등 논의

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및 배터리,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, 뿌리기술 인력양성 등 지난 9월 한-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, 유가스전 탄소포집저장(CCS), 원전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월 3일(일)~ 3월 5일(화)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고위급 회담,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갖고 양국 간 핵심적인 경제협력 분야 협력 이행기반을 마련하였다.

우선, 양 차관보는 먼저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(Jisman P. Hutajulu)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전기차,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 양측은 「한-인니 e-모빌리티 협력센터」를 올해 상반기 가동하기로 확인하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. 한편, 미국 IRA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광산, 정제련소 투자 등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하였다.

이어서 안디 리잘디(Andi Rizaldi)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산업 인력 양성, 수입규제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. 특히,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「한-인니 산업협력 MOU」의 후속 성과로 인니 크라카타우 포스코-인니반뜰 폴리텍대학-한국뿌리산업 진흥센터 간 「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」를 체결하였다. 이를 통해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양질의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양 차관보는 인니의 수입물량제한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아울러, 현지 진출 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니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「한-인니 경제협력위」 등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등에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수출·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혜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윤청현 (044-203-5711)
	산업공급망정책국 뿌리산업팀	책임자	팀 장	박희범 (044-203-4905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진 (044-203-4906)

